

구성원 소개

김영승 변호사는 금융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 · 증권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송과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는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 코스닥 상장회사 G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 △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전부 무죄, △ 코스피 상장사 Y, 코스닥 상장사 K 등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전직 애널리스트 L 등 비상장주식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사채업자 K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 △ 비상장사 K의 500억 원대 분식회계 외부감사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이 있습니다.

김영승 변호사는 금융분야 외에도 건설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동업자간 분쟁 및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다올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로 파견 근무하며 국내 부동산펀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실무경험도 쌓았습니다.

학력

2006	경기관광고등학교 졸업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6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경력

2016~2023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21~2022	다올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파견 근무
2024~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TEL.

02-3479-2699

MAIL.

youngseung.kim@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민사·자본시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사외이사에 대한 2,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판결 이끌어

[민사·금융] 5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의 외부감사법인(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경영권분쟁]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밝혀 내 원심결정을 뒤집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승소한 사건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공직선거대응

금융소송